

## Ethylene glycol 음독에 의해 유발된 안면신경 마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신장연구소

진규복 · 광충환 · 성정훈 · 홍수희 · 이기태 · 황은아 · 한승엽 · 박성배 · 김현철

**서 론** : Ethylene glycol은 자동차 부동액으로 사용되며 음독시 고장성 장애, 대사성 산증, 급성신부전, 심폐부전과 중추신경계 독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부전의 원인은 oxalic acid와 glycolic acid에 의한 세뇨관 손상으로 알려져 있다. Ethylene glycol 음독시 혼수, 발작, 뇌부종, 뇌신경 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장애가 보고되고 있으나 그 임상양상이나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ethylene glycol 음독 후 발생한 뇌신경 장애에 대한 국내의 보고는 거의 없다. Ethylene glycol 음독후 급성신부전, 산혈증, 고장성 장애와 함께 의식저하, 안면신경 (facial nerve)을 포함한 뇌신경 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장애가 동반된 증례를 경험하고 이를 보고한다.

**증 례** : 환자는 47세 남자로 자살목적으로 ethylene glycol 800 mL를 마시고 지역병원에서 급성 약물중독에 준한 응급치료 후 기면상태와 호흡부전을 보여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과거력 및 가족력은 특기사항이 없었다. 이학적 소견상 혈압 140/80 mmHg, 맥박수 92회/분, 호흡수 25회/분, 체온 36.2°C였다.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기면상태였고 양측 동공은 대광반사 없이 2 mm로 고정되어 있었고 각막반사도 소실되어 양측 동안신경 (oculomotor nerve) 마비를 보였다. 양측 코입술 주름 (nasolabial fold)의 편평화가 관찰되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 11,970/mm<sup>3</sup>, 혈색소 18.1 g/dL, 혈소판 220,000/mm<sup>3</sup> 이었다. BUN 12 mg/dL, 혈청 creatinine 2.5 mg/dL, 동맥혈검사상 pH 7.1, 이산화탄소분압 12 mmHg, 중탄산염 4.3 mEq/L, 산소포화도 98% 이었으며 나트륨 152 mEq/L, 칼륨 5.0 mEq/L이었다. osmolar gap 41, anion gap 15.3 이었다. Antidote인 ethanol을 부하용량 0.6 g/kg, 유지용량 0.66 mg/kg/hr으로 2일간 투여하였다. 입원 2일째 대사성 산증과 고칼륨혈증 악화, 핏뇨, 혈청 creatinine의 증가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입원 11일째 의식혼탁과 저산소혈증을 보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17일째 의식이 명료해지고 호흡이 호전되어 기도삽관을 제거하였으나 시력 장애를 호소하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전기신경생리 검사상 양측성 안면신경 마비로 진단되었다. 입원 23일째 대광반사와 시력이 회복되었다. 입원 30일째 혈액투석을 중단하였고 요량이 일일 3,000mL로 증가되고 혈청 creatinine은 4.1 mg/dL로 감소 되었으나 하구순의 운동장애는 지속된 상태로 퇴원하였다. 음독 2개월 경과 후 외래 추적조사에서 정상 신기능과 동안신경, 안면신경의 완전한 회복을 관찰할 수 있었다.